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vol.22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2019

# KOSCA LETTER



#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 “쌍아올림”

2019.11.19(화)

오후 6시30분, 부산 KBS홀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부산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회원사를 위로하고, 화합의 하모니 통해 부산전문건설업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입장권 신청 및 문의: 부산시회 기획관리부(Tel.051-633-0260)



인순이



김연자



수와진



팝페라 휴



부산아시아콘서트  
오케스트라

## PART 1

- 04 권두사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세환**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 06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08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PART 2

- 10 협회 소식
- 16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19 SPECIAL   틈새 회화
- 20 부산전문건설위원회 건설기술 관련 소개
  - 자산특수토건(주)
  - 삼지건설(주)
- 22 SPECIAL   부산의 명소(장림포구)
- 24 SPECIAL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쿠리치바 보타닉 식물원)
- 25 SPECIAL   쉬어가는 유머



## PART 3

- 26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41호** - (주)금정토건 대표이사 문준식  
                          **건삶인 제42호** - (주)서진조경 대표이사 류향복
- 30 건설산업정보 - Part.1
- 34 건설산업정보 - Part.2
- 47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0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52 SPECIAL   틈새 스트레칭
- 53 SPECIAL   건강 지키미
- 54 SPECIAL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55 SPECIAL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상담소)
- 56 SPECIAL   취미의 발견

## PART 4

- 58 회원사 현황
- 61 SPECIAL   의료 업무협약(MOU) 체결 안내
- 6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 64 SPECIAL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65 SPECIAL   중앙화·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4/4분기 주요 일정 안내
- 66 SPECIAL   독자와 함께



“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존경하는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 건설업의 상생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레터 2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건설 산업 발전에 힘쓰고 계신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공기업으로서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어나가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동산 규제 강화와 불안정한 경기여파로 건설업계의 일거리는 감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제도의 개편으로 업계상황은 불안합니다.

공사는 지역건설업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5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전문공사 지역제한 추정가격도 현재 7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건설업에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창조적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에 산·학·관 여러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의 심도 깊은 연구와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건설산업은 늘 그래왔듯이 큰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위기를 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목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내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과 함께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을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고, 부산 지역건설업의 동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김세환입니다.

먼저 코스카레터 2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협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water는 2012년부터 강서구 일대 약 357만평(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총 사업비 5조 4천억원 규모로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부산지역의 건설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남권의 산업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첨단산업, 국제물류, R&D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 수변 레저, 문화, 생태 기능이 조화된 글로벌 친수도시로서 약 7조 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3색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지구 약 83만평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플랫폼으로서, 물로 특화된 한국형 도시모델이자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는 로봇활용 생활혁신, 스마트 워터, 제로에너지 도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등 도시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가 현실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미래 도시의 달라진 생활상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원동력으로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

**김 세 환**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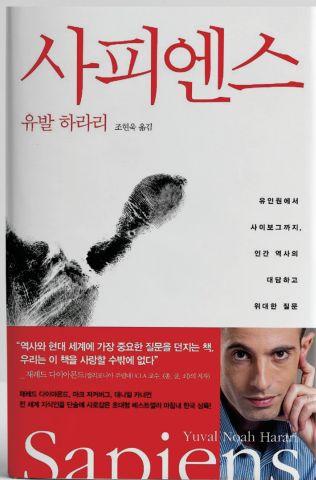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송정은

-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10월 첫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3위>는 어린이도서 『훈남대 2』로 추천도서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 <4위>는 지난 호에 실린 『여행의 이유』가 차지했습니다.



사피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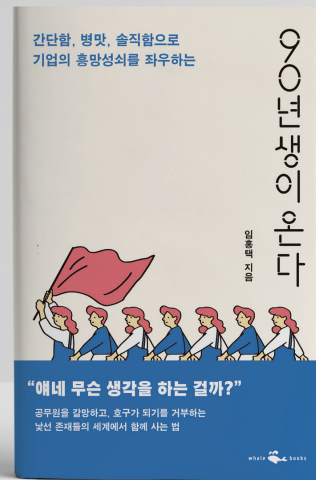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2,000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인간은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멀고먼 인류의 시원부터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간의 역사를 생물학, 경제학, 종교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조명했다. 호모 사피엔스부터 인공지능까지, 기나긴 역사를 한 권으로 써내려간 문명 향해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 웨일북 | 14,000원

90년대생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 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 되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은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고, 기업은 본격적으로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Best Seller BOOK



## 2020 부의 지각변동



박종훈 | 21세기북스 | 17,000원

이 책은 2020년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올 것인지 분석하면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시그널과 진짜 시그널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경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쓸림’이라는 7가지 시그널을 소개하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불어 닥칠 대규모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저자의 노하우를 담은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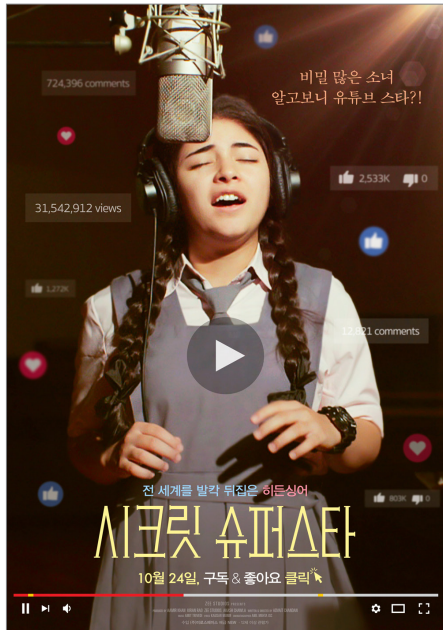


## 베스트 셀프



마이크 베이어 | 로크미디어 | 18,700원

당신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는 진실한 자아에 충실한 일과 인간관계로 충만한가, 아니면 책무라는 짐에 짓눌린 채 지내는가?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지금의 삶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이 그 꿈을 현실로 바꾸려고 시도할 때이다. 이 책, 《베스트 셀프》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 시크릿 슈퍼스타

개봉 2019.10.24. | 감독 애드바이트 찬단

출연 아미르 칸(삭티 쿠마르), 자이라 와심(인시아)

### 까칠한 사춘기 소녀의 비밀스런 랜선 라이프!

TV 속 스타들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재기발랄 음식광패 15세 소녀 '인시아(자이라 와심)'.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지만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인시아가 그저 빨리 결혼하여 한 남자의 소유물로 살아가길 원한다. 인시아는 자신의 꿈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시크릿 슈퍼스타'라는 가명으로 얼굴을 가린 채 노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구독자수 100만 이상의 세계적인 유튜브 스타로 떠오른다.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설렘도 잠시, 인시아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벽을 깨닫고 가수의 꿈을 포기 하려던 중 최고의 이슈메이커이자 프로듀서인 '삭티 쿠마르'(아미르 칸)에게서 러브콜을 받게 된다. 인시아는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 엔젤 오브 마인

개봉 2019.10.30. | 감독 김 파란트

출연 누미 라파스(리지), 애니카 화이트리(롤라)

### “난 느낄 수 있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리지는 7년 전 사고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돌보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리지는 우연히 아들 토마스(핀 리틀)의 친구 생일파티에서 롤라(애니카 화이트리)를 마주치게 된다. 리지는 롤라가 사고로 잃은 자신의 아이라 확신하며 롤라를 향한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인다. 불안한 상태인 리지는 자신의 어긋난 직감만을 믿고 롤라와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의 시작을 알린다. 그런 리지로부터 롤라를 지켜야 하는 롤라의 엄마 '클레어(이본느 스타라호브스키)'. 평탄했던 그녀의 일상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균열이 가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롤라의 주변을 맴도는 리지의 모습에서는 미묘한 섬뜩함과 함께 관객들의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예고한다.





## 프렌드 존

개봉 2019.10.30. | 감독 늑 분프라쿰

출연 나똥 시양솅분(팍), 핼차녹 류위셸파이분(깁)

“선을 그은 것도, 사랑을 시작해 버린 것도 내!”

10년 동안 남자친구로 셸프 박제된 한 남자의 짝사랑을 그린 짝사랑의 짝함과 첫 사랑의 셸렘, 절친 케미가 만들어내는 웃음으로 가득한 완성형 로맨틱 코미디다.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오랜 친구로 지내온 여사친 ‘깁(바이편 핼차녹)’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부터 새로운 남자친구와 알콩달콩한 ‘깁’을 씹쓸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사원에서 함께 기도를 올리는 와중에도 몰래 ‘깁’을 바라보는 ‘팍’의 모습은 그의 짝사랑을 응원하게 만든다. 포스터의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에서 팍은 ‘FRIEND ZONE’이라는 테이프가 쳐진 고깔 모양의 라바콘 사이에 갇혀 있다. 오래된 친구 사이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부터 셸레는 순간까지 다양한 감정선을 넘나드는 ‘우정 이상, 사랑 이하’의 묘한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 오늘, 우리

개봉 2019.10.31. | 감독 조은지, 부은주, 송예진

출연 정수지(지은), 이상희(민정), 조민경(수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화 <오늘, 우리>는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지은, 민정, 수진, 헤리, 민영의 짧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드라마다. 생일을 맞은 민정과 남자친구와 2주년을 맞은 지은의 모습에서 ‘사랑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힘든 아르바이트 중 채용 합격 문자를 확인하는 수진의 모습에선 평범한 삶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솔직함이 어려운 헤리, 민영은 마주한 현실이 버겁기만 하다. 이후 힘든 하루를 보낸 듯한 지은, 민정, 수진, 헤리, 민영의 모습과 함께 ‘당신의 오늘은 어땠나요?’라고 물으며 그들이 마주한 오늘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일상 속 위기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낸 ‘오늘, 우리’는 주인공들의 희망찬 모습을 통해 5인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2019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12일 「2019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 및 협회 주요일정 계획(안) 등을 보고하고, 부산사랑 지역신문보기 업무협약(MOU) 체결,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운용방안 등 협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 2018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12일(12:00) 2018년도 부산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 우수업체 대표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2018년 실적 및 2019년 경영상태평가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방안 등 협회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부산사랑 지역신문보기 업무협약(MOU) 체결식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경제 및 부산 전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부산일보(2019. 7. 17), 국제신문(2019. 7. 25.)과 상호 공동의 발전을 위한 「부산사랑 지역신문보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회는 지역신문보기 캠페인 전개를 통한 지역 언론사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사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부산지역의 일감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일거리 창출,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사용 등)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부산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2019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1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7월 18일 「2019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표회원 연수회 및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개최, 부산사랑 지역신문보기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보고 등 협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건설의 날 포상자(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경,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2019년 상반기 협회 주요 업무 보고 및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추진 계획 등 협회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 2019회계연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9월 5일(11:00 / 협회 회의실) 「2019회계연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제2차 회의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설명과 함께 기술개발·정보공유를 위해 제출된 각 위원들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형겸 위원장(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은 터널 천공 및 그라우팅 등의 시공 시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IoT기반

스마트 시공시스템」과 「초미립자 시멘트 및 무포장 이송설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태원 위원(삼지건설(주) 대표이사)은 저렴한 설치비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는 현장 지하층 등에 철근 및 거푸집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레이 제작·성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다양한 건설 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코스카레터의 기술자료(p20~p21)로 홍보했다.

## 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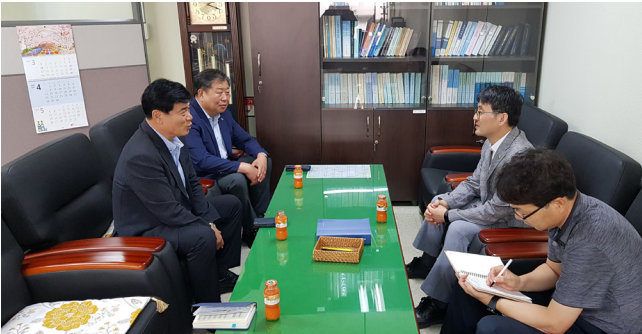
### 2019회계연도 대표회원 연수회(산업시찰)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9월 18일 협회발전과 대표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제11대 대표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대표회원 연수회(산업시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며 전문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협회는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시와 발주기관, 지역 언론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특히 부산시 하도급 관리팀과 함께 지역 대형공사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둘러보고, 울산 상북면 가지산에 있는 사찰인 석남사를 탐방하며 대표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방문

부산시회(김세원 회장)는 7월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하여 박종배 소장과 면담을 갖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종배 소장은 “부산지역 하도급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전문건설업체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추석명절 대비 건설현장 점검 실시

부산시회(김세원 회장)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부산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등 지역 내 4개 대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각 현장의 하도급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 부산교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9월 19일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및 건설관계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및 해당 업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부산시회에서는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 거건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반영하여 줄 것과 부산교통공사 발주공사에 부산지

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점검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이종국 사장은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하여 부산시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9월 20일 양정동 소재 식당에서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공사 설계품의 현실화 및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소형 개인 물탱크 설치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 이근희 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과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옥상 소규모 물탱크 설치 확대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부산시회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유재중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9월 28일 유재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과 면담을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공참여자 대체 제도의 도입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격심사제도 낙찰률 상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 조정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협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협회 소식

## 회장동정



### 부산시장과 상공인 만찬 간담회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7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30주년을 맞아 주요 기업인을 초청하여 개최한 「부산시장과 상공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7월 29일(14:00 /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오거돈 시장, 변성완 행정부시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LH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K-Water 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BMC도시개발본부장,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 BPA 경영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지역건설산업이 처해있는 심각성을 상호 공유하고, 부산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건설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실무자, 각 단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거돈 시장은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산광역시 및 각 발주기관, 건설관련단체 실무담당자 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 2019 BMC 기술발표회 참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9월 26일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회장 김가야)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2019 BMC 기술발표회 및 기술전시회」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막식 축사를 했다.

이번 기술발표회는 시민중심의 안전복지를 구현하고 신기술, 스마트건설 등 건설 분야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산·학·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부산건축선언 참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9월 26일(16:00 / 부산유라시아 플랫폼(부산역 광장) 1층 이벤트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부산건축선언」 발표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시의원, 구청장, 부산시 산하 기관과 관련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 건축에 대한 미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하며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강화, 공공건축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수주지원

### 01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부산시회는 7월10일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신세계건설(주)】을 대상으로 발주예정 공종인 실내건축 등 마감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 공사개요

- **공사명:**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 **연면적:** 17,198㎡
- **공사규모:** 지하 5층, 지상 20층
- **공사기간:** 28개월(2018. 5 ~ 2020. 9)

### 02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 근절 추진

####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도장, 방수공사 등 건설업 무등록 불법 시공 근절을 위해

부산시회는 8월 20일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도장 및 방수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이러한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들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 무등록 시공 시 처벌사항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혐의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 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의 난립과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03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 타지역 공동주택 공사도 낙찰받을 수 있어,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의 준수를 위해 실시간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률적, 관행적으로 잘못 발주된 42건(7억 6천만원)의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정정조치 하는 등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회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영업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기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라도 타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04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 실내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보수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 입찰참여 기회 제공 협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실내리모델링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거나, 특수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8월 21일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수집·분석한 「2019년 추경예산」 중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회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은 대부분 기술협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권의로 실내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복개구조물·하수박스 보수보강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69건, 약 104억원, 2019년도(9월 말 기준)에는 48건, 약 90억원에 달하는 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 05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책 준수 협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책 준수 협조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정·투명한 계약 집행의 일환으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하여 4월 24일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군청, 공사·공단, 사업소 등에 지침을 시달렸다.

이번 종합 운영계획에서는 발주부서가 실시단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적용 여부를 판단토록 하였다.

부산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시책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산하 자치 구·군 감사관실(계약심사 담당)을 방문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에 대한 시책을 설명하였으나 부산시 산하 자치단체 대부분의 감사관실(계약심사 담당)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해당 운영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차원의 협조가 필수라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 06

##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직접시공 중지 추진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포장공사 직접시공 중지 요청

2006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에서는 2009년부터 7,000㎡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자체 시공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 포장공사업체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7,000㎡ 이상인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7,000㎡를 훨씬 초과하는 “가락대로 포장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9월 4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어려운 부산지역 민간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포장공사업체에게 도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가락대로 포장공사의 경우 도로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민원 등으로 인한 긴급 포장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직접시공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포장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포장공사 도급 발주를 확대하겠다고 회신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07

## 2019년 추경예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추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추경예산 중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9월 10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2019년 추경예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요청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다.

08

##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9월 19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및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을 대상으로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만덕대로와 총렬대로 등 기존 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써 생활여건 및 교통체계 개선 등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시회는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시공사【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를 대상으로 동 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제도개선

01

##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상향 조정 안내

부산시회가 지역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적정공사비 미반영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자 수차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은 2020년 1월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의 제비율 요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법정 제비율 요율이 부산과 인접한 경상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적용하는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반영되어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쾌거를 이루어 냈다는 평이다.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 환영의 박수와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원가 제비율 상향 적용 기준

비목	현재 적용기준	상향조정기준
이윤	9%	15%
일반 관리비	2.8%	6%
간접 노무비	5.6%	8%
기타 경비	3.1%	5.6%





### 독일어 기초 인사말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인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아침 Guten Morgen / 구텐 모르겐 점심 Guten Tag / 구텐 탁 저녁 Guten Abend / 구텐 아벤트
처음 뵙겠습니다.	Freut mich / 프로이트 미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Schön sie kennen zu lernen / 쉰 지 켄넨 주 레르렌
환영합니다.	Willkommen / 윌커몬
감사합니다.	danke / 당케
수고했어요.	Gute Arbeit / 구테 알바이트



### 독일인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TIP. 01**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독일 기업의 특성상 거래를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

**TIP. 03**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수집으로 미팅 전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는 필수!

**TIP. 02**

미국과 달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몇 주 전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편이다.

**TIP. 04**

목적을 사교보다 더 중요시하며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다.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 네이버 사진

# 부산건설전문위원회 건설기술 관련 소개

## 지산특수토건(주)

### 초미립자 시멘트와 무포장 이송설비 개발에 따른 그라우팅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효과

#### 현황 및 문제점

차수 및 지반보강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그라우팅 공사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조물 기초 보강을 포함하여 댐·하천제방, 항만, 철도, 터널 등 대형 토목공사 시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보강공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그라우팅 공사는 대부분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OPC)를 주재료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공정이기에 포대포장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멘트는 입경의 크기 등 주입성이 낮아 오버플로우(overflow)에 의한 다량의 슬라임(Slime)이 발생하여 시공성에 비해 그라우팅 효과가 떨어지고, 다량의 폐기물 처리 등 금전적 손실 또한 크다. 더불어, 시멘트 포대작업에 의한 분진발생 등 공사 현장의 환경문제, 공사자들의 신체 안전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그라우팅 공사 시 일반 시멘트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을 통한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를 나 타낸 것이다.

#### 1) 초미립자 시멘트 개발

국내 기존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고내구성의 초미립자 시멘트는 분말도 6,000~8,000cm<sup>2</sup>/g 이상이기에 토립자의 입경이 작은 실트, 점토지반에까지 주입이 가능하다. 초미립자 시멘트는 물과의 혼합 시 수화 발열량이 적고, 가용성 알루미늄 및 규산염 성분이 시멘트와 수화반응 시 생성된 유리수산화칼슘과 불용성의 안정한 수화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해수 및 공장폐수·하수 등에 대한 내화학적 저항성이 크고, 내열성과 수밀성이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 육가크롬(Cr6+) 함량이 일반 시멘트에 비해 현격히 낮고, 유해성분이 거의 없어 환경이 부각되는 그라우팅 공사에서는 매우 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초미립자 시멘트를 사용함으로써, 강도개선은 물론 주입성 향상으로 슬라임 억제, 슬라임 폐기처분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원가절감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효과 검증(좌:초미립자 시멘트, 우:보통 시멘트)

※ 보통 시멘트 대비 4배 이상 충전도 확보(대학연구기관검증)

#### 2) 무포장 이송설비 개발

그라우팅 공사는 소규모로 흔히 진행되므로, 현장에서는 시멘트 포대를 반입 후 사용 시 작업자가 수시로 개봉 후 믹서교반기에 투입해 사용하는 절차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공정이 현재까지 대중적이나 실제 상황을 보면 개봉 후 교반기에 투입 시 시멘트 분진이 작업자의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작업자의 인체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며, 더불어 사용한 빈 포대는 폐기물로 처리하기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준다. 이에 무포장 이송설비를 추가 개발하여 공장에서 초미립자 시멘트를 생산 후 포장없이 현장으로 바로 이송, 믹서교반기에 바로 투입시킴으로써 시멘트 분진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 처리비 또한 없애준다. 결과적으로 시멘트 분진발생으로 인한 작업자와 현장주위환경의 문제가 개선되며, 포장지대 비용제거 및 운반비용 역시 저감함으로써 원가절감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당초)포대시멘트 작업

(개선 후)SILO플랜트 작업

## 삼지건설(주)

### 일체형 데크 위의 자재이동 시 발 빠짐, 전도 사고예방 위한 레일대차 적용효과

#### 현황 및 문제점

지하 TOP-DOWN 적용 시 자재인양구의 제한된 배치로 철근외 기타 자재 소운반 거리가 증가되고 또한 데크 위를 인력으로 자재이동 시 발 빠짐 사고,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을 통한 상기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 1) 이동대차와 레일제작과 적용

##### 1-1. 제작과정



① 곡선레일제작



② 직선레일제작



③ 코너+직선레일 연결



④ 대차테스트



⑤ 코너부 수정작업



⑥ 제작 완료 후 시험운행

##### 1-2. 현장배치 사진대지



##### 2) 현장 실적용 후 문제점과 대책

###### ① 대차 양중 무게의 한계

강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데크 상부 적재하중 구조검토가 필요

###### ② 대차 및 레일의 설치, 해체에 따른 추가공정 발생

직영작업반(외국인 연수생) 구성하여 반복교육, 작업 실시

###### ③ 작업팀의 재래식 방법 의존성

꾸준한 반복 교육으로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 원가(소운반)의 개선확인이 필요함

###### ④ 대차에 자재적재 후 이동 시 대차 주변의 발 빠짐 재해

안전요원 포함해 3인이 1조가 되어 작업 실시

##### 3) 향후 현장 적용 확대

① TOP-DOWN 공법 적용현장뿐만 아니라 최근 지하층 스라브에 데크 플레이트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당사에서 사용한 레일 및 대차가 적용된다면 자재소운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다채로운 색감으로 물든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01

한적했던 어촌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주변 공장들과 달리 각각의 색으로 화려하게 물든 컨테이너 건물이 특유의 감성을 뽐내며 포구와 어우러진다. 부산 바다와 맞닿은 낭만적인 건물 덕에 연인들 사이에서는 산책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가을의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를 소개한다.

글 송정은 사진제공 사하구청, 누리부산



02

## 알록달록 이국적인 부네치아

장림포구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한 선착장이다. 사하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다대포로 가는 길에 만난 첫 번째 다리, 장림교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장림포구를 만날 수 있다. ‘부네치아’로도 불리는 이곳은 최근 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부네치아란 ‘부산+베네치아’를 뜻하는 말로, 장림포구에 붙은 애칭이다. 길이 650m, 폭 100m의 포구 양편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은 이탈리아풍 건물과 배가 떠 있는 풍경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연상시킨다고 해 ‘부산의 베네치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장림포구 양쪽에 마련된 산책로는 색감이 아름다워 커플 스냅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자연광만 있으면 별도의 보정 없이 완벽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 01 권기학 - 장림포구
- 02 박봉수 - 이른아침 장림포구(금상)
- 03 사하구 - 장림포구
- 04 사하구 - 장림포구

부산에서 가장 이국적인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관광객에게는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스튜디오다.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는 컨테이너 반대편이다. 바다와 컨테이너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감성의 완벽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포구 곳곳에는 시계탑 건축물을 비롯해 예술 조형물도 만들어졌다. 유럽에서 볼 법한 시계탑과 특이한 조형물 또한 여행하는 이들의 사진 촬영 장소가 되어 주어 많은 사람에게 급속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풍차를 본떠 만든 공중화장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화장실이다. 건너편 1층은 유럽풍 소형 건물, 2층은 예술 조형물 등으로 문화촌을 만들어 놓았다. 장림포구는 다채로운 색감들이 햇살을 받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낮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름다운 낮을 지나, 해가 넘어갈 때는 황홀한 일몰이 운치를 더한다.

### 장림포구, 아는 만큼 즐긴다!

장림포구는 김 생산지로 유명한 마을이었지만 1970년 이후 일대가 매립되고 공단이 들어서면서 포구 기능이 약해진 곳이다. 사하구는 2012년부터 72억 원을 들여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했다. 약취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원화하고, 편의를 위한 판매·휴게시설을 도입하는 등 장림포구 명소화를 위해 특별히 꾸며졌다.

포구로 들어서면 알록달록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13개 동 건물이 늘어진 맛술촌이 눈길을 끈다. SNS 사진 배경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맛술촌은 사하구가 청년창업자, 어묵 제조업체, 어촌계에 운영을 맡겨 방문한 관광객이 음식이나 차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곳이다. 입점 업체 공모 사업을 통해 어묵, 건어물 등 부산 지역 특산품 업체와 수공예품, 드론 체험장, 도기 공방, 천연제품 판매점이 자리 잡았다. 사진 찍는 것 말고는 딱히 즐길 거리가 많지 않던 곳에 카페와 공방, 체험장 등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장림포구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발전 중이다. 현재 장림포구는 포구 사이를 연결해줄 다리가 없어서 포구를 반 바퀴 돌아야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을 연결할 아치 주탑 사장교 형식의 다리인 레인보우 브릿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레인보우 브릿지가 건설되면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좋아진 미관으로 부네치아의 랜드마크가 되어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냥 보내긴 아쉬운 계절, 장림포구 맛술촌, 놀이촌, 문화촌, 공판장 곳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사람이 북적대는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면 장림포구에 가보길 추천한다.



**Tip!**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93번길  
72 장림동 1092 (장림동)

#### 체험종류 및 영업시간

- 도자기체험(약 40분 소요)
- 드론영상체험(약 20분 소요)
- 토탈공예체험
- 그외 업체(뜨개질공예, 건어물, 커피, 스테이크, 어묵 등)
-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오전11시~오후 6시(업체별 다름)

## 신비롭고 투명한 유리 온실 쿠리치바 보타닉 식물원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수도 쿠리치바 도심 중심부엔 '쿠리치바 보타닉 식물원 (Botanical Garden of Curitiba)'이 있다. 투명한 유리의 성을 연상시키는 식물원은 쿠리치바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1991년 개장한 식물원은 프랑스 정원의 형식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입구로 들어서면 분수와 폭포, 넓은 꽃의 정원이 펼쳐진다. 기하학적 모양의 화단으로 이루어진 프랑스풍의 정원을 걷다 보면 아르누보 양식의 온실이 나타난다. 온실 내부에는 오직 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는 귀한 꽃과 식물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약 140평 규모의 온실은 여러 개의 대형 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돌이나 벽돌 같은 전통적인 재료가 아닌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져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쿠리치바 식물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브라질의 생태 수도'를 꿈꾸는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에 의해 만들어졌다. 온실 앞에 조성된 정원에는 희귀한 꽃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으며, 어두워진 후엔 다양한 조명으로 빛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온실의 조명은 때때로 글로벌 이벤트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하다. 매년 10월이면 유방암 인식의 달을 지원하기 위해 분홍색 조명을, 도로 안전을 위해 교통에서 '주의'를 뜻하는 노란색 조명을 사용한다.

쿠리치바 식물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로, 조깅이나 산책하는 사람들, 관광객들, 현장학습을 나온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공원을 즐길 수 있다. 식물원은 도심에서 5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도시의 주요 명소를 왕복하는 관광객용 버스를 타면 된다.

글 송정은







STORY 01

사우나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

- 유형1** 도발적인 유연성 체조를 스스로없이 하는 사람
- 유형2** 앉을 자리도 별로 없는데 퍼질러 눕는 사람
- 유형3** 좁은 공간에서 방귀 꺾는 사람(훈련소 가스체험실을 회상케 함)
- 유형4** 사우나실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사람



STORY 02

어머니와 딸



- 딸** 엄마, 잠이 안 와요.
- 엄마** 그러니? 그럼 하나에서 백까지 세어 보렴.

한참이 지난 후 엄마가 딸에게 물었다.

- 엄마** 그래도 잠이 안 오니?
- 딸** 여든까지 셀 때는 즐렸는데 엄마 말대로 백까지 다 세려고 꼭 참았어요.

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건담인

(주)금정토건  
대표이사 **문 준 식**

“  
자신의 역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정이 서글서글하다. 꾸밈이 없다고나 할까. 말을 하는 게 구수하고 막힘이 없다. (주)금정토건 문준식(59) 대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이끌어와서 그런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비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젊게 보이는 밝은’ 건담인이다.

그는 부산 토종이다. 그것도 금정산성마을 출신의 ‘진골’ 토박이다. 그가 왜 사명을 금정토건이라 지었는지 알만하다. “초등학교 때 시내로 내려왔다가 성인이 되어 올라가 옛집을 수리해 8년 가량 살았지요. 금정산 정기를 받고 자란 그곳을 도저히 잊을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자녀 교육 문제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고향인 산성마을에 사는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그곳에 땅이 제법 남아있단다. 유원지로 묶여 있는 부지가 해제되면 아담한 2층 주택을 짓고 여름 별장으로 꾸미는 게 그의 꿈이다.

문 대표는 특이하게도 원예고등학교(당시는 한독원예고)를 나왔다. 원예고 3회인 그의 동기 70명 중 현재 원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고 한다. “원예고를 선호했던 건 학비가 무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요. 저도 그래서 들어갔지만 원예를 좋아하지는 않았습시다. 더구나 친척 형님이 화공오퍼상을 하며 돈을 잘 버는 게 부러워 부산공업대(현 부경대) 화공과에 진학했죠.”

대학 시절 그는 평생 먹고살 직업을 일찌감치 정해버렸다. 군 전역 이후 복학한 그는 27살 때 화공과 동기 2명과 함께 창업했다. 수질 환경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의 “떼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수공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취직을 당연시했던 대학생이 ‘새파란’ 나이에 창업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일을 위해 수업도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겼다. 이른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부곡동 오시계 시장의 1층 점포를 빌려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섰다. 여상을 나온 경리직원까지 뽑아 월 8만 원을 줬더니 어엿한 회사가 아닌가. “제가 이래봬도 ‘벤처 1세대’인 셈이지요. 허허허.”

포클레인 공사판이 벌어지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 그 결과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고. 한창 젊었을 때라, 총각 삼총사가 모여 술잔을 ‘권커니 받거니’ 하다 보니 돈을 모으지는 못했단다. “집에서 학비와 용돈을 받아쓰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게 어답니까?”

문 대표는 1994년 친구들과 헤어져 금성토건을 설립하며 독립하게 된다. 친구 한 명은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명은 부산에서 사업하다 부도를 맞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숨졌다. “친하다 보니 돈에 관해 철저히 못했죠. 이해타산으로 인해 갈등이 많이 빚어졌고 결국 서로 돌아선 겁니다.”

그는 이때 엄청난 경험칙을 얻었다. 사실 친구 사이에는 동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다. 주위에서 친한 감정으로 사업을 함께 시작하나 끝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사업은 이익을 다투는 것인데, 이익 앞에 서면 인간은 소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고는 서로가 배신했다며 원망한다. ‘이익에 앞서 의를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의미를 잊고 사는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문 대표는 ‘분수를 지키자(守分)’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내 그릇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욕심을 내면 필경 화를 입게 되니까요.”

그는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공사는 맡지 않는다. 일하기가 벅찰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도 필요해 인건비를 제하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표의 생각이다. “하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사업을 넓힐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꼭 눌러참았죠. 지금도 대형 사업은 제 능력 밖이라 여기고 맡지 않아요.” 그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적게 자주 벌자. 그게 내 그릇이다’. 금정토건 외에 아들 명의로 (주)새금정을 설립해 포장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코 사업확장이 아니라고 했다. “포장공사란 게 상수도사업의 땅파기와 연관성이 매우 깊거든요.”

사업에서 돈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체득했던 문 대표. 그래서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기 위해 무척이나 공을 들인다.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청년회외소(JC) 활동에 ‘올인’했다. 이때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영식이(밥을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는 사람)’란 별명을 얻었지만 리더십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자부한다.

현재 협회 상하수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6년 전 친수회(親水會)를 만들어 매년 한 차례 부부 해외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회에 건의한다. 또한 협회 대표위원만 6년을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관계 형성에 열성적이다.

그렇다. 사람은 분수를 알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문 대표는 그 목표를 향해 뚝뚝뚝 걸어가고 있다. <도덕경>은 족함을 모르는(不知足) 위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다. ‘화(禍)로 말하면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로 치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할 줄 아는 데서 얻는 만족감이 영원한 만족감이다’.

글·최원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초심을 지키는 건삶인

(주)서진조경

대표이사 **류 향 복**

“  
조경은 도시에 자연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

회색의 칙칙한 환경, 대도시의 삶은 그래서 삭막하기만 하다. 콘크리트 빌딩과 숨이 턱 턱 막히는 탁한 공기 속에서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문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파김치가 된 도시인들은 쉴 곳이 필요하다.

(주)서진조경 류향복(53) 대표가 나섰다. 지친 도시인들에게 상큼한 자연을 안겨주기 위해. 집무실에서 만난 류 대표는 흰철한 키에 얼굴 윤곽도 굵었다. 하지만 말이 좀 어눌했다.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 발로 뛰니까요.”

대변약놀이(大辯若訥)이란 말이 있다. 서툰 말 솜씨를 말하는데, 참으로 뛰어난 언변은 어



눌해 보인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니 류 대표를 가리키는 표현인 듯하다. 그의 마음속이 조경(造景)에 대한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생소하기만 했던 조경에 관심을 쏟아 삶의 길로 정한 그는 고향 합천을 떠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조경회사에 입사해 10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2006년 독립해 서진조경을 세웠다.

“조경은 도시에 자연을 도입하는 작업이죠. 공간에 ‘삶의 가치와 질(quality of life)’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분야입니다.” 쾌적한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경시설물 관리가 전문가이다. “식재는 나무를 설계대로 심으면 되지만, 시설물은 창의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토목을 예쁘게 꾸미는 기능이죠.”

그런데 조경시설물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단다. 직선적인 성격의 토목에 비해 조경은 곡선적이어서 인건비와 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장 비용이 설계금액을 넘어서는 게 다반사라고 한다. “조경 품셈을 따로 정해야 해요. 다른 부문에서 손실을 메워야 하

니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조경시설물 공사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도시에 신선함을 제공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주저 없이 대답한다. 이게 바로 조경에 대한 진정성이 아니고 무엇이라.

“제가 만든 소공원에서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 각박한 세상에 웃고 떠드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는 공원시설물 사업을 크게 소공원과 아파트 조경공사로 나눠 설명했다. “소공원은 관급 공사로 대충이 즐기는 게 목적이고, 아파트 공사는 민간사업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편의 위주로 이뤄지죠.” 부산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급증에 따라 조경공사도 늘고 있는 반면, 소공원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서 부산시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사실 부산의 소공원 지표를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부산의 소공원은 지난해 초 기준으로 310개가 지정돼 있지만 전체 면적이 부산시민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무려 5,600억 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인천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만 보더라도 부산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니 부산시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상반기 입찰에 나서면 주로 풀베기 작업이나 할 뿐이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산에만 300개가 넘는 조경시설물 업체가 있지만 사실 대형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에 입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업체들이 그들의 협력업체 위주로 입찰을 진행하니까 당연하죠. 부산시 조례 역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하니 법적 효력이 없고요.”

류 대표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수도권 업체들과의 교류가 힘들어져서 지역 조경업체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다. “부산시 조경협회 전시회에 초청해도 수도권 업체들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관에서 아예 시설물을 사서 지역업체들에게 시공하라고 내주니 그들이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내려오지 않게 되죠.”

류 대표는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조경인이다. 그가 맡은 첫 공사는 지금도 뇌

리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 1인 회사로 출발했던 그는 2006년 영도 고신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산책로 공사를 떠맡았다. 당시 설계도에는 기념탑만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류 대표가 나서 기념탑 주위에 수목벽을 세우고, 휴게시설을 추가시켜 광장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 관철시켰다. 이후 그는 비오는 날에도 우의를 입고 나서는 등 성심성의껏 공사를 했고, 그의 섬세한 마무리에 만족한 고신대측은 그에게 1년간 추가 사업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제 자신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태함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돈이 안 된다고 일을 멀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철학은 ‘처음처럼’이다. 물론 술광고(?)가 아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해나가겠다는 믿음을 지니겠다는 각오다. 그가 항상 푸르른 적송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자의 명언이 떠오른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글·최원열



## 01

###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19년 1월 17일 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체당금 지급상한액 인상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이 변경 고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2019. 6. 7.)】

#### 1. 일반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체당금) (단위: 만원)

항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60세 이상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 비교: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 2. 소액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 (단위: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3. 시행일: 2019. 7.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노동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20호(2019. 6. 19.)】

#### 1. 제정목적: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
  -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 변경요구 기준 마련

-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
-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
  - 발주자의 대여계약변경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건설산업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2019. 7. 15.)】

1.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대한 배점 신설
2.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3.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에 신기술 이전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교육 및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세부항목 추가
4.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건설산업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중요!

## 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목표로 생활주변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88호(2019. 7. 16.)】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7호(2019. 7. 16.)】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 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재도장공사 추가(시행령 제44조 제5호,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가목)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되어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 5년 마다 외부 도장공사 시행 → 2021. 1. 1.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시행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병원,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50m 이내 및 주거지역 전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 → 2019. 7. 16.부터 시행
-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 설치
  - 원칙적으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2021. 1. 1.부터 시행

※ 단,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폴리우레아 도로 사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는 롤러방식 이외의 방식 사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우리 협회가 기획재정부에 불합리한 규제 및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서 교부 의무화**(제14조 제2항)
-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 제1항 제1호)
  - (현행) 30억원 이상 → (개정) 3억원 이상
-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축소**(제76조)
  -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입찰참가 제한 폐지
  -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한 서류 미제출 및 낙찰자 결정 이전 심사 포기자의 입찰참가 제한 폐지 등
- **하도급법 등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정비**(제76조)
  -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한 경우 등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제52조 제1항)
  - 계약보증금 납부를 통한 이행보증 가능
-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원칙적 면제**(제37조 제3항 제5호)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의무적 현장설명 실시 조항 삭제**(제14조의2 제2항 삭제)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범위 확대(300억원 → 100억원 이상)**(제42조 제4항 제1호)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한 의무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조항 삭제**(제13조 제1항 단서 삭제)



• 시행일: 2019. 9. 17부터

※ 단,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제37조 제3항 제5호, 제42조 제4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9. 12. 17.)부터 시행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 제한경쟁입찰 중 시공능력 기준 완화(제25조 제2항)

- (현행) 2배 이내 → (개정) 1배 이내

• 지역제한 기준 완화(제25조 제3항)

- 공사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자격 보유자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입찰참가 허용

• 시행일: 2019. 9. 17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새로이 구축하고 2019. 7. 1.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용자 상설교육(전산교육)을 개설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310호(신동아노블타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회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회원사가 받지 않고 동 정보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직권말소 예정 토지 중인 장비 사용 금지 안내

부정한 방법(허위 연식 등)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 대상이며, 시·도지사는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 통지 후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말소예정 통지 중인 건설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건설현장에서는 미등록 건설기계, 미수검 건설기계 및 말소예정 통지로 등록번호표·등록증 봉인이 영치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항)

-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 불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0조 제1항)

#### 2.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동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44조 제2항의 제7호)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안내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을 하는 사업장은 세척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내용

-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 설치
-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
-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
  - 구분 설치, 작업장에서의 거리가 300m 이내 설치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중요!

## 04

##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통보제도 이행 철저 안내

부산사회는 7월 30일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가.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나.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50만원
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작성**(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권고
  - 다. 위반 시 제재사항
    -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1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 ※ 단,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3.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다.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라.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동법 제99조 제3호)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3항, 시행령 제34조의4)

가. 수급인(원사업자)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 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면제 기준

- 1건의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다.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 시정명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3호)

####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가. 수급인(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라.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시행령 제64조의4, 시행규칙 제34조의5)

가.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시행령 89조 별표7의 서목)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7. 하도급 등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가.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라.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 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신고(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발생 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의 사항을 2시간 이내 통보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http://www.csi.go.kr)), 전화팩스 및 기타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활용 가능

나.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05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안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2019. 7. 25.)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 자격 개선과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수입업체 등록제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 1.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자격 개선

- 소형타워크레인 대상범위 구체화  
(현행) 인양톤수 3톤 미만 → (개선) 인양톤수 + 지브길이 + 모멘트
- 조종자격 개선: 최소한의 조종능력 확인을 위한 실기시험 추가

#### 2.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 원격조종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 전담조종사 지정 의무화
- 타워크레인 국가자격 시험·평가 시 원격조종방식 운영

#### 3. 사후관리, 유지관리 체계, 사고관리 등 강화

- 타워크레인 수입업체 등록제 실시
- 부품인증제 적용 단계적 확대
- 연식별 안전검사 실시  
(10년) 안전성검사, (15년) 비파괴검사, (20년 이후) 정밀검사
- 등록, 사고, 정비 및 검사이력 등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작업구역 명확화
-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장비 퇴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2019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개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2. 수급조절 기간: 2019. 8. 1. ~ 2021. 7. 31.(2년간)
3. 수급조절 방법: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건설기능인 취업연계사업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과 직업훈련생 일자리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건설기능인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건설기능인의 구직 정보를 회원사의 구인활동에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하였다.

### 1. 구직 신청자 현황

- 도장공, 타일공, 건축목공, 용접공 등 43명
- ※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교육원 훈련과정(700시간) 수료자

### 2. 구직정보 확인

- 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에서 회원사 로그인 후 「코스카 구인 / 구직광장」에 접속하여 일반 구직정보 검색 → 인적사항, 직종, 희망지역, 자격사항 등 정보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안내

정부는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 건설 현장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10월까지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1. 대규모 건설현장 불시·집중점검(국토교통부)

- 점검기간: 2019년 8월부터 연말까지
-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
  -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 불시·집중 점검 실시

※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 실시

### 2. 수시점검 및 순찰, 집중감독(고용노동부)

- 점검기간: 2019년 7월 ~ 10월(168개 점검반)
-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
- 시정지시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조치를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 3. 자체 현장점검(지방자치단체)

-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전조치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 시행

## 4. 산재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홍보 추진

- 건설업 사망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TV·신문·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확산
-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실시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지속 확대·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계약 추정제도 적극 활용 안내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사 시공 중 추가 구두 작업지시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약서 미작성, 구두 작업지시 등으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의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을 개정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작업지시 내용 등을 발주자(수급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추정제도를 도입·시행(2016.8.4.)한 바 있다.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재차 안내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추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1. 계약 추정제도란?

-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자(수급인)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의 의사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 2.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의 사항
  - 그 밖에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한 사항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계약 추정외 통지 및 회신 방법

- 내용증명 우편
- 전자문서
- 그 밖에 통지 및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외 통지 및 회신 방법)

• 서면의 보관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서면 자료를 도급(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

10

## 하도급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건설관련 법령 안내

### 공공 발주기관이 앞장 서 법령 준수해야...

부산시회는 9월 5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점검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하도급 통보 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등의 발주기관으로서의 의무 점검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자가 보호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통보 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다.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① (생략)
-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 ① (삭제)
-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① (생략)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홍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 11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협조

부산시회는 9월 5일 부산지역 공동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60여 시행·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유보, 대물변제, 장기어음 지급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회는 회원사들로부터 부산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시행·시공하는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기성금 유보,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시공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유보하여 지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회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청구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보 또는 대물변제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산 지역 공동주택 시공사에 요청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며,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도할 계획임을 밝히며 건전한 건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12

##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2019. 5. 1. ~ 5. 31.
-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①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②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③ 직종번호 앞의 「\*」표시는 조사 현장 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 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① 전체직종: 216,770원[2019년 상반기(210,195원) 대비 3.13% 증가]
  - ② 일반공사 직종: 203,891원(2019년도 상반기: 197,897원)
  - ③ 기타 직종: 242,858원(2019년도 상반기: 231,976원)
- 직종별 노임단가: 부산사회 홈페이지 참조

## 3. 2019년도 하반기 노임적용시점: 2019. 9.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레비 요구행위 근절 협조

### 월레비 등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현장에 배치·운용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월레비 등의 부당금품을 별도로 요구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적지 않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대응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난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가 모두 동참하는 「노사정 협력 약정식」에 참여하여 월레비 등 부당한 금품요구 및 지급 근절 노력을 포함하는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수년간 월레비는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고착화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일체의 월레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행위에 대해 철근·콘크리트업종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인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전문건설사업자가 동참하여 월레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협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4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개보수 포함) 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실내용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기 전에 환경기준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개요
    - 제조·수입자: 설치자에게 판매 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6종\*)만 공급(실내표지 부착)
      -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 2020년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6 → 7종)
    - 설치자: 신축 또는 개보수 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
      - ※ 위반 시 : (제조·수입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종
    -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예외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 환경 마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HB 마크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5

##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범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1. 2019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범위반사업자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1	금문산업(주)	김문식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24
2	(주)신한코리아	김한철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9
3	한일중공업(주)	박정원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40
4	화산건설(주) ※ 토건, 조경, 시설물	김완	경기 군포시 광정로 80

## 2. 2017, 2015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추가사업자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1	(주)에코로바	조병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7길 13
2	에스피피조션(주)	손성호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개정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방식을 종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개정하여 2019. 6. 19.부터 시행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 ①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로도(기존방식)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

####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 산정 중 제비율 적용관련

**?** 당초 적게 반영된 사회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건설법 제87조에서는 건설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등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건설공사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실제 적게 지출되어 남은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 등이 정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영비용 증액 등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위 회신내용을 기초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당초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당사자 간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 8. 23.



## 건설공사 4대보험 정산관련

**?** 민간 및 공공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정산 대상 여부?

- !**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에 보험료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산정 및 정산은 위의 기준 등에 따른 요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직접노무비 및 사회보험료를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산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보험료 확인 및 반영·정산 주체인 발주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 8. 21.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 ? 판시사항

-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②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지고 위 기간이 연장이나 갱신 없이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정산합의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급보증기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지급보증금의 청구사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정해진 경우 위 지급보증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도과된 나머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면, 원사업자로서는 처음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보증기관에 대하여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정산합의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전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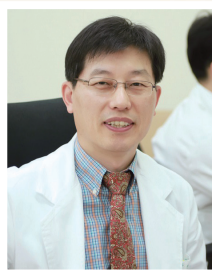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 특별기고

단순 가슴 방사선 사진으로는  
놓치기 쉬운 폐암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양승오 주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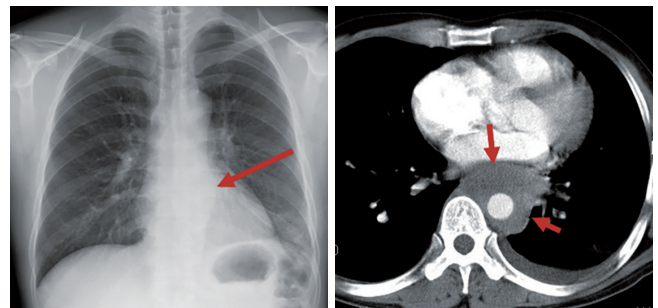


단순 방사선 촬영법은 독일의 린트겐(W.C. Roentgen) 박사가 1895년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형광물질을 바른 판자(형광판)가 흰하게 빛을 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알 수 없는 빛, 즉 엑스(X)선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상 검사입니다. 린트겐은 이 위대한 발견으로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이후 린트겐이 엑스(X)선 발견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한 덕택으로 방사선산업과 방사선의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흔히 폐암, 폐부종, 폐렴, 기흉 등의 폐질환이나 뼈의 골절이나 종양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서 지난 백 년 이상 의료의 대변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 방사선 촬영은 입체적으로 앞뒤가 중첩된 총합 음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변의 주위로 밀도가 비슷한 정상 해부학적 구조가 위치하는 경우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코맥과 하운스필드 박사가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 단층촬영)를 발명하여 인체 내부의 단면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층영상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단순 가슴 방사선 영상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위치의 종양이 CT와 PET/CT(양전자방출 단층촬영)로 잘 진단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평소 숨이 차고 갑갑한 증세를 호소하던 L씨(41.남)는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 흉부사진에서는 하행대동맥이 지나는 위치가 약간 불룩하게 돌출되었고 (그림 1의 왼쪽 화살표), 이어서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은 피가 약간 보일 뿐 정상이었으며, 식도 내시경에서 말단부 식도가 점막의 병변이 없이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면을 보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한 흉부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하행대동맥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는 낮은 음영의 종괴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그림 1의 오른쪽 화살표). 왼쪽 늑막에는 삼출액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 가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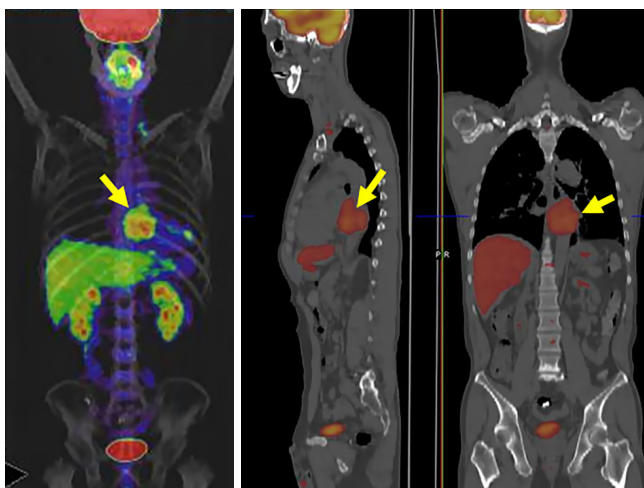
CT의 중단면 영상

**그림 1** 왼쪽 단순 흉부사진에서 유심히 관찰할 경우 하행대동맥이 지나는 위치가 약간 불룩하게 돌출되어 보이고, 오른쪽 흉부 CT에서 조영제로 인해 하얗게 보이는 하행대동맥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는 낮은 음영의 종괴 덩어리가 관찰됨.

최근에 임상 의사들은 이런 경우의 덩어리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혹은 악성일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얼마나 어떻게 전이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PET/CT를 촬영하게 되는데, L씨도 F-18-FDG라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사 받은 뒤 PET/CT를 찍었습니다. 그림 2와 같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하행대동맥 주위에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어린이 주먹만 한 종괴 덩어리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최대섭취가 주위 정상 조직의 섭취 평균치보다 4배 이상(SUV: 4.07)인 악성 종양이 진단되었고, 다른 부위의 전이는 없었습니다. 당분과 유사한 물질인 F-18-FDG는 두뇌와 심장, 방광, 간, 신장 등에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것도 알아두면 의료상식으로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L씨는 종격동의 경피적 내시경을 통해 소세포 폐암으로 조직 진단되어, 화학요법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11개월 만에 암의 재발로 42세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L씨는 1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고, 수차례 검진을 통해 단순 가슴촬영을 찍어 왔으나, 조기에 폐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상당히 진행되어 대동맥을 둘러싼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입니다.

흡연과 관련된 폐암은 주로 상피세포암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선암과 소세포 폐암도 흡연자에게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씨의 경우처럼 병변이 단순 가슴촬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20~30년 이상의 흡연력이나 공해 물질(석면 등)에 노출된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영상 진단 특히 LDCT(저선량 전산화단층촬영)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암의 상대적 위험도를 14배 이상으로 높이는 흡연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절실합니다.



PET/CT의 MRI 영상과 관상면, 시상면 영상

**그림 2** F-18-FDG PET/CT 영상으로 하행대동맥 주위에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어린이 주먹만 한 종괴 덩어리가 잘 관찰되어 방사성동위원소의 최대섭취가 4.07인 악성 종양으로 진단됨.

2019년 이 가을에 흡연 중이신 독자 여러분께는 금연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2019년 이 가을에 흡연 중이신 독자 여러분께는 금연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 건강정보

### LDCT(저선량 전산화단층촬영)란?

해부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는 방사선 피폭이 조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선량 CT는 보통 찍는 CT보다 방사선량을 80% 정도 감소 시켜서 폐암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인 NLST(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폐암선별연구)에서는 통상적인 폐CT의 유효선량이 8mSv인데 반해 1.5mSv 정도로 낮은 LDCT를 이용하여 폐암검진율이 93%이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합니다. 대한폐암학회는 2014년 말에 LDCT는 16세 이상의 다중검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이 갖춰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하고, 판독 또한 특정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또한 스캔의 절편 두께는 2.5mm 이하로, 수검자가 표준체중이라면 유효선량 1.5mSv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PET/CT 검사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체내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화하는 최첨단 검사로, 현재 알려진 암 영상 진단 방법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암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PET/CT는 이러한 기능적 검사인 PET과 해부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를 동시에 시행하는 검사로서, 한 번의 간편한 검사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각종 암 진단과 치료의 경과 추적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중증 암환자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므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오랜 시간 자세변화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몸 컨디션 및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짧은 시간 투자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어른이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스트레칭 법을 소개한다.



☑ 어깨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간단 스트레칭!

어깨는 하루에 3,000회 이상 움직일 정도로 사용량이 많으며 우리 신체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사용 빈도와 범위가 넓은 만큼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필수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어깨 스트레칭으로 어깨질환을 미리 예방해보자!

- ❶ 양손을 엉덩이 아랫부분에 대고 어깨를 뒤쪽으로 잡아당긴다.
- ❷ 동시에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자세를 20초 이상 유지한다.
- ❸ 양손을 아래쪽으로 쭉 펴서 견갑골을 아래로 끌어당긴 상태로 20초 이상 유지한다.

- ❶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팔걸이에 올린다.
- ❷ 양손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켜준다.
- ❸ 이 동작을 12번씩 3회 반복한다.

# 얼굴부터 시작되는 노화 눈 건강이 위험하다!

글 송정은

중년이 되면 신체는 큰 변화를 겪는다.  
갱년기 증상을 비롯해 성인병, 암 등 크고 작은 질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이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눈 질환으로 인간의 장기 중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다.  
20대부터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어 40대에 접어들면 눈이 나빠진 것을 자각할 정도다.  
가장 크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눈 질환, 대표적인 눈 건강 이상신호에 대해 알아보자.



### 시야가 흐려진다

자주 시야가 흐려져도 노안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돋보기를 써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눈병을 의심해야 한다. 백내장이 생기면 혼탁해진 수정체로 인해 시야가 흐리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흔한 노안 증상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시력 감소와 함께 두통이 생긴다

시력이 떨어지면서 두통,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녹내장의 증상이다. 급성 녹내장은 통증이 심해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서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말기이므로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압(안구 내부의 압력) 및 안저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 평소 안압이 높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이는 녹내장의 주요 원인이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안압이 높아 질 수 있다. 머리를 숙여 화면을 장시간 들여다보면 안구에 피가 몰려 안압이 높아질 수

있다. 화면의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은 화면 자체가 빛으로 이뤄져 있고, 조명이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압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눈에 좋은 음식과 영양 성분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려면 식생활부터 돌아봐야 한다. 눈이 건조하거나 시력이 감퇴된 느낌이 들 때 혹은 밤중에 눈이 침침하다면 비타민 결핍을 의심해봐야 한다. 비토 반점(Bitot Spot)이라고 해서 눈의 흰자에 회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칠어질 수도 있다.

눈에 좋은 대표 먹거리 중 하나가 블루베리다. 눈의 모세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모양체근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노안 예방에 효과가 있다. 백내장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망막은 DHA와 EPA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 많이 들어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어 식품이나 영양제 등으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한다.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들기름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안전 확보!  
 영조물 배상공제**

길을 걷다보면 도로가 움푹 파여 있거나 꺼진 곳, 보도블럭이 빠진 곳들이 보인다. 이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다리를 접질리거나 심한 경우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이런 경우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됐을 경우, 배상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한다.



**출퇴근사고  
 업무상재해범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하철과 버스, 자전거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등 재해 범위가 확대됐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병원 진료 다녀오는 길, 투표하고 오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엄마·아빠를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영유아 부모교육' 체험교실이다. '영유아 부모교육'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부모님이 받는 교육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 자녀 발달 상태에 따른 놀이 방법 등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하도급 분쟁 상담소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와 분쟁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공정위를 가도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포기하기 일쑤다.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도급 분쟁 해법을 알아보자.

## 원청의 변경계약서 일방적 작성에 대처법

A사는 조적, 미장, 방수 등 습식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국립대학 실험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공사 진행 중 추가대금 5억원 가량을 반영해주겠다는 B사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외에 옥상, 기계실, 폐수조, 전기실, 6층 계단 쪽에 미장작업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후 A사는 기성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미지급 공사대금 5억원과 추가공사로 인해 증가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B사는 당초 하도급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변경계약서의 표지만을 날인해 송부하도록 요청했고, A사는 이에 따랐다.

하지만 추후 계약서를 받아보니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10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줄어있었고, B사는 이미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확정됐으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B사의 요청에 따라 내용확인도 없이 변경계약서의 표지만을 날인해 송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간혹 업체들이 이러한 입증노력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알아서 조사해 판명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료의 확보, 정리는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결국은 하도급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사실을 정확히 밝힐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신고인인 원도급업체에 유리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경우 업체 차원에서 정보 없이 대처에 나서기보단 공정위와 법원,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움직이길 권장한다.

###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상담소

# 푸른 하늘 위로 꿈을 날리다 — 드론

넓은 공터나 관광 명소 등에 가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드론이 친근해졌다.  
저렴한 가격과 쉬운 조작으로 점차 '드론붐'이 불더니  
이젠 명실상부 취미활동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푸른 하늘 위로 나만의 드론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글 송정은





## 어른을 위한 취미

30~40대 남성들의 취미생활로 드론(Drone)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떠올랐다. 손바닥보다 작은 완구형 드론부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드론, 스피드와 묘기를 즐기는 레이싱 드론까지 종류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드론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날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스스로 평형을 잡을 수 있어 조종이 어렵지 않다. 여기에 넓은 공터에 앉아 영상송수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드론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을 나는 기분마저 느껴진다. 평소 느껴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드론을 취미생활로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드론을 고르는 것이다. 드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최소 25g부터 최대로는 1천 200kg까지 무게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가격 역시 5만 원 이하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입문자의 경우 10만 원대 전후의 드론을 추천한다. 고가의 드론보다는 연습을 위해 저가용 드론으로 기술을 익히고, 숙련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단계를 올리는 것이 좋다. 드론의 크기 또한 중요하다.

입문용 드론으로 너무 큰 모델을 선택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너무 작은 드론 역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드론을 선택해야 한다.

드론을 처음 살 경우엔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체 조작 방법을 알려주고 비행 시 주의 사항까지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미용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호회도 많이 생겨났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동호회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좋다.

## 드론 조종 시 주의사항

나에게 맞는 드론을 선택했다면 다음은 적절한 연습 장소를 찾아야 한다. 공항이나 관제 구역, 높은 건물이 있는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제한구역을 잘 살피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넓은 공터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공원이나 축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제한적 비행이 허용된다.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돼 있고, 안개 등으로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날려선 안 된다. 드론을 지나치게 높게 날리는 것도 좋지 않다. 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날릴 경우 지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법상 모든 드론은 비행 고도 150m를 넘길 수 없다. 드론을 착지시킬 때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밀착한 후 조심스럽게 놓아주어야 한다.

권장 비행시간은 보통 7~10분이다. 이 시간을 조금 넘긴다고 해서 부품에 즉각적인 무리가 발생하진 않지만, 과다 사용으로 방전될 경우 아예 충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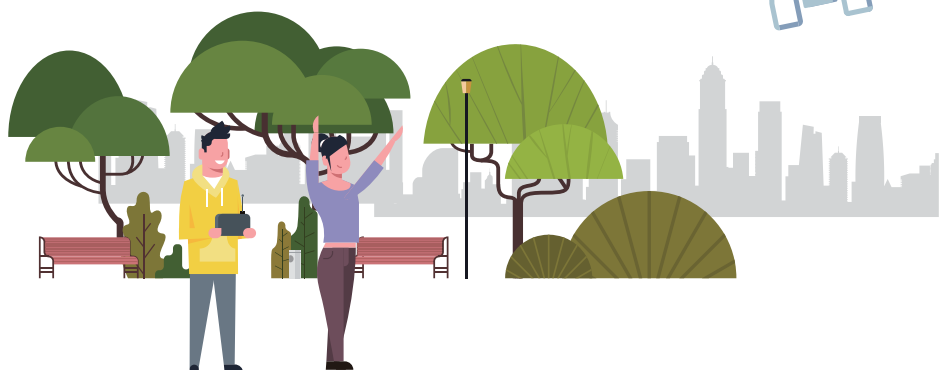
적정시간인 10분씩만 비행하더라도 연속으로 4~5번씩 비행하면 모터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다. 비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무리하게 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 사고·분실 대비 장치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만 비행
- 야간 비행 금지
-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 자제
-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
- 비행 전 해당 제품의 매뉴얼 반드시 숙지
- 전파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

# Drone



# 회원사 현황

##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 7. 1. ~ 9. 30.



규림건설(주)  
**박규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4, 410호(양정동, 양정삼한골든뷰)  
**T: 051-851-5577**  
보유업종: **습식·방수**



(주)글라스올  
**이정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68, 3층 302호 (대저1동)  
**T: 051-973-628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금신건설산업(주)  
**정영신**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6번길 2, 305호(중앙동5가, 세운빌딩)  
**T: 051-939-6500**  
보유업종: **수중, 준설**



다원디자인  
**손현주**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62, 상가동 206호 (우암동, 상경전원맨션)  
**T: 051-636-5616**  
보유업종: **실내건축**



대고건설(주)  
**김해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85, 1층 (철산동)  
**T: 051-723-0471**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대성엔지니어링  
**조복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47번길 16, 101호 (대저1동)  
**T: 051-832-5545**  
보유업종: **도장**



대영이앤씨(주)  
**정경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101동 1809호 (광안동, 힐탑더블시티)  
**T: 051-923-7368**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주)대진건설  
**정성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116, 3층 (금사동)  
**T: 051-917-4407**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도방건설  
**박성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501호(남천동, 글로리메디컬센터)  
**T: 051-852-7786**  
보유업종: **포장**



(주)동신타스글라스  
**임병래**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3-1 (초량동)  
**T: 070-7779-4723**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라토즈이앤지(주)  
**이순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91번길 31, 3층  
**T: 051-710-3990**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리엘  
**이경형**  
부산광역시 기종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55, 906호 (골든스카이오피스텔)  
**T: 055-785-3200**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보화강건  
**정희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8-17, 2층 (송정동)  
**T: 051-702-2108**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부경메탈  
**강정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장로 137, 204호(장전동, 현대성우오스타)  
**T: 051-554-3107**  
보유업종: **지붕판공·건축물조립**



설송건설(주)  
**예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11, 201호(낙민동)  
**T: 070-4773-100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주)송정건설

**이창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64  
번길 24, 1층 (전포동)

T: 051-806-6442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신영건설산업(주)

**박무형**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593(좌동리)

T: 051-728-4445~6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



(주)씨텍

**장필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1509호(모라동, 부산벤처타워)

T: 051-775-2251

보유업종: 수중



(주)우영이엔지

**서진숙**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714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T: 051-631-9804

보유업종: 강구조물



(주)제이케이알에스티

**정용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달2로 24  
(생곡동)

T: 051-832-0533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주)청명이앤디

**안영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113

T: 051-728-2965

보유업종: 습식·방수, 도장



(주)타임종합건설

**천창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12,  
4층(하단동, 동남빌딩)

T: 051-715-8777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태백

**양흥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13번길 2

T: 051-723-2791

보유업종: 조경식재

# 회원사 현황

##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9. 7. 1. ~ 9.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보영개발(주)(대표: 이상준, 강원도)	(주)경원개발(대표: 양경화, 경남)
(주)시영산업(대표: 강민구, 경남)	디오건설(주)(대표: 이경근, 창원)
(주)에이치비건설(대표: 신정훈, 대구)	(주)비케이이앤씨(대표: 김철식, 경북)
준성시스템(주)(대표: 이응옥, 대전)	세경조경(대표: 김운중, 울산)
진성토건(주)(대표: 조용만, 경남)	(주)두산조경개발(대표: 김미경, 제주)
화수분건설(주)(대표: 백창호, 경남)	(주)영진건설(대표: 서종석, 울산)
(주)후지케이알엘리베이터(대표: 강성오, 대구)	(주)호산이엔지(대표: 정승환, 경남)

##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9. 9. 30.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2	73	연 제 구	141	222
동 구	50	101	해운대구	232	321
서 구	24	28	수 영 구	114	172
사 하 구	75	99	부산진구	176	238
영 도 구	25	38	북 구	85	111
동 래 구	172	220	사 상 구	124	163
남 구	99	139	강 서 구	202	276
금 정 구	241	356	기 장 군	205	303
			합 계	1,997	2,860

부산사회에서는  
회원봉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지역 종합병원** 등과  
**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체결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1	온종합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당감동)	607-0114
2	부산고려병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8(대연동)	930-3000
3	좋은강안병원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625-0900
4	(재)자생의료재단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93	791-5101
5	더스카이치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7번길 순천향빌딩 3, 4층	816-7528
6	이유치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KE빌딩 5층 502호	634-7504
7	스카이랩브란트치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 A+메디컬센터 5층	808-2875

— **수혜대상**

우리 사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 **이용방법**

해당 의료기관 방문 ⇒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임을 고지 ⇒ 협회 사무처로 신분확인 ⇒  
의료혜택 지원

— **협약내용**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 의료기관 우선 진료서비스 제공
- 무료 건강상담 및 무료 건강강좌 지원
- 외래진료 등 비급여 부분 최대 20% 비용 할인(병원마다 상이함)

— **기타사항**

의료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기획관리부  
(☎633-0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 01\_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숯불난로 교체 중 일산화탄소 질식(중독) 사고

####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해 사용한 숯불난로 교체작업 중 연소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1명 사망

기인물



대나무숯 적화 전

대나무숯 적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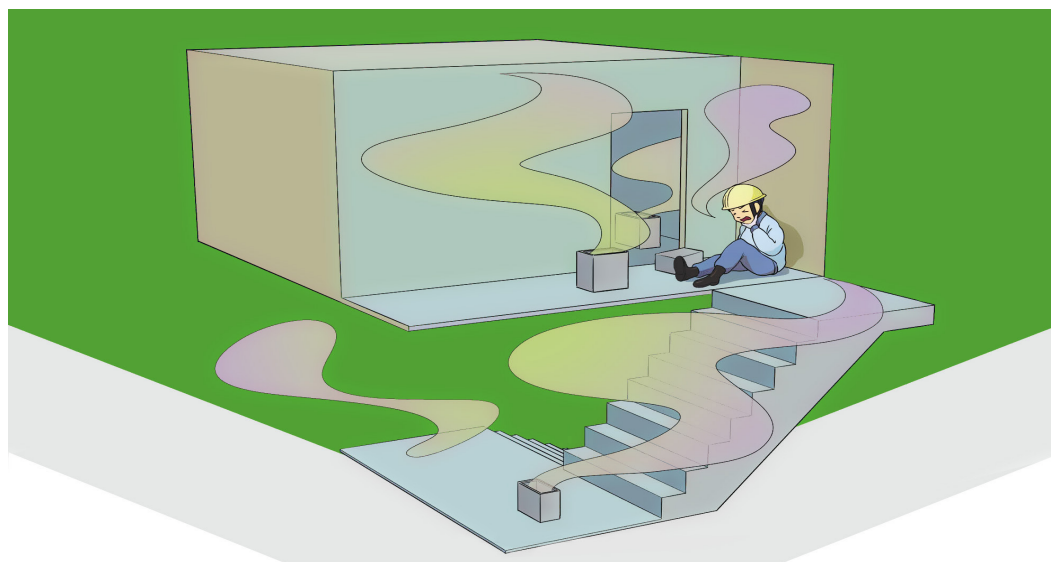
대나무숯 소각 후

#### 재해 발생 원인

- 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미실시
-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 ③ 감시인 미배치
- ④ 안전한 작업방법 등 미주지
- ⑤ 고체연료 유해위험정보 미수령
- ⑥ 환기 미실시
- ⑦ 대피용 기구 미비치

#### 재해 예방 대책

- 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실시
-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③ 감시인 배치
- ④ 안전한 작업방법 등 교육
- ⑤ 고체연료 유해위험정보 수령
- ⑥ 환기 실시
- ⑦ 대피용 기구 비치



#### 관련법령

- 산업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 KOSHA Guide H-80-2017(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 및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02\_ 밀폐공간 작업 전 이것만은 확인!

### 체크사항



작업자 교육



출입금지표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연락체계구축, 인원점검

### 송기마스크의 종류

#### ●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무게가 무겁고, 유효 사용시간도 짧으나 활동범위에 제약이 없어 조사활동이나 구조활동에 많이 이용
- 송기마스크: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만, 가볍고 유효 사용시간이 길어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 송기마스크의 종류

종류	형식	급기방법
호스마스크	흡입식 호스마스크(가장 간단한 방법) - 착용자의 폐력에 의해 흡기(최대 길이 약 10cm) - 위험도가 높은 장소 사용 지양	 착용자의 폐력 흡인
	수동 송풍식 호스마스크 - 전원이 없는 장소, 긴급 사용 시 편리 - 송풍기를 돌려주는 작업은 매우 피로	 전동송풍기
	전동 송풍식 호스마스크 - 필터 정기 점검 - 코드 플러그에 '급기마스크 운전 중' 표시 - 통상 방폭 구조가 아님	 수동송풍기
에어라인마스크 - 호스마스크에 비해 먼 곳까지 송기 가능 - 장시간 작업 가능 - 컴프레서 과열되지 않도록 점검	일정 유량식 에어라인마스크  디맨드식(Demand) 에어라인마스크 	컴프레서 또는 공기분배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디맨드&압력디맨드형 	

안전관리공단에서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삼각대 등

대여문의: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대표전화: 1644-4544)

##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1 교육일자 및 장소

교육일자	교육장소
2019. 11. 15.(금)	대구 MBC(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컨퍼런스룸)
2019. 12. 13.(금)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번지, 6층 소강당)

-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2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3 교육대상

-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 2016. 2.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시행일: 2016. 2. 11.)]
- ▶ **교육 참석대상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 개인: 대표자

### 4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 5 교육비: 15만원(교재 중식 포함)

- ▶ 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 신청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1076)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중앙회(회장 김영운)는 8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건설협회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전건협에서 김영운 회장, 윤양로 상임부회장, 강지형 회원부회장과 LH는 변창흠 사장, 한효덕 건설기술본부장, 임동희 단지기술처장이, 건협에서는 유주현 회장, 정병운 상근부회장, 이병화 회원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기연장 시 하도급자 간접비 적용 선도적 시행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등 현안을 건의했다.

**03** 김영운 중앙회장은 8월 16일 방송된 ‘KBS 다큐세상-2019, 대한민국 난개발 보고서’ 편에 출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관련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자연환경 복원 등 난개발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해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들이 계획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공장이 빠져나간 지역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변 자연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2** 중앙회(회장 김영운)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21일 서울 중구 공제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건설기능인력의 현장 진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운 회장, 송인회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청년 건설기능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돕는 공제회의 ‘특성화고 연계 뉴-마이스터 훈련’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고, 기능인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04** 김영운 중앙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들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전문건설업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뜻을 전달하고자 9월 9일 오전 5시 서울 남구로역 인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에게 안전용품(안전각반, 마스크)과 간식을 전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청년 건설기술인력 양성과 건설현장의 숙련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식 훈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란 전국의 12개 참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금속장호, 토공, 철근, 실내건축 등 전문건설 분야의 산업현장교수, 기술사 등 숙련기술자들의 지도하에 3개월간 현장 맞춤형 교육(도제식 훈련)을 받고, 올해 12월부터 전문건설회사에서 회사별로 필요한 현장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합에서는 참여 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교내 훈련비, 실습장비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취업할 경우 조합원사 참여기업에게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02**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정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9월 8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가설기자재보증상품은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체결한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시스템비계와 안전방망(플라이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대여계약의 임대료가 보증대상이다.



**KOSCA 부산시회 2019년 4/4분기 업무단신**

일자	주요일정
2019. 10. 25.(금)	노동업무 설명회
2019. 10. 29.(화)	건설분야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2차)
2019. 11. 7.(목)	사랑의 연탄기금 전달 및 연탄나눔 봉사활동
	제3차 회장단 회의
	제3차 운영위원회의
	제2차 임원연석회의

일자	주요일정
2019. 11. 19.(화)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쌓아올림”
2019. 11월 중	제4차 부산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신규회원 간담회
2019. 12. 13.(금)	제4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 (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신개발(주)  
**김수찬** 과장

복잡하고 변화하는 건설산업에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코스카레터에는 각종 핵심사례와 판례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어 리스크 축소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분투하여 주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전문건설업 종사자분들이 코스카레터를 읽고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다세움건설  
**오경선** 차장

출근길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코스카레터를 볼 때면 먼저 마음이 설립니다. 협회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공문으로 알려주지만 여러 가지 개정된 법령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그리고, 개정된 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신고 관계나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등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꼭꼭 눌러 담겨져 보내오는 코스카레터가 참 고맙습니다. 볼때마다 복사해서 스크랩을 하게끔 하는 코스카레터! 늘 도움 주는 자료 감사드립니다.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대미안건설 **배종애** 과장
- (주)해마루건설 **이영숙** 대표이사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10억원 미만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최근 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 제6항 개정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을 통해 2시간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고 발생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고 발주자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19. 12. 31.(화)**까지)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

높은 하늘과 부드러워진 바람결,  
햇살마저 따사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산과 들은 저마다의 붉은 옷을 입고  
완연한 가을의 멋을 뽐내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9년 Vol. 22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mailto: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